

금융중심지의 미래: 백서*

(The Future of Financial Centres: White Paper)

* 2022년 4월 WAIFC(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가 발표한 보고서의 발췌·번역임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 요약 >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후원으로 작성된 본 백서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금융센터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음
- 금융서비스는 기업·개인·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및 교역을 통한 글로벌 경제성장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금융기관들은 사회경제, 기술, 인구구조 관련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국제금융센터들은 각 지역의 금융시장 발전, 영업환경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에 있어 최선봉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제금융센터 육성 기관들은 상호 협력과 경쟁과 교역 및 지식교류 확대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영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미래의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1) 디지털 금융 혁신
 - 2) 지속가능 금융 발전
 - 3) 여건 변화를 반영한 규제 유도
 - 4) 인적자원 개발
 - 5) 미래 비전: 친환경 및 스마트 금융, 혁신적이고 고객중심 금융, 디지털 및 포용적 금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금융

I. 개요

1. 백서 작성 배경

- 본 백서는 현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하고 다양한 도전* 해결에 있어 금융중심지가 향후 10년간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조사

* 인구구조, 지속가능성, 4차 산업혁명 등

- 본 보고서에서 금융중심지는 다양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거래가 집적되어 이루어지는 장소와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해 세계 주요 도시에 만들어진 여러 기관을 포함한 의미

* 법, 회계, 감사, 컨설팅, 기업 홍보 등

■ 금융중심지의 구성 요소

- 인적자본
- 영업환경
 - 규제, 법률, 공정거래정책, 무역 및 투자 정책 등을 포함
-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폭과 깊이 및 유동성 규모
- 디지털 및 물질적 기반시설
- 평판

2. 금융중심지 및 금융업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

■ 인구구조 변화

-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2050년까지 인구가 두 배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구(25세~64세)가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
- 동아시아 및 유럽의 당면 과제로 부각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취업인구에 대한 은퇴자 수 비율은 현재 24%에서 2050년에는 47%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2070년 53% 전망)
- 경제적 이민을 포함하는 이민이 증가하여 현재 세계 인구 중 출생국가 밖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3.5%에 달함

-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도시 인구의 확대. 세계적으로 도시 지역 인구 비중은 현재 55%에서 2050년에는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함. 이와 함께 생물학적 다양성(biodiversity)에 따른 위험, 공해 감축, 지구에 대한 인간의 영향 축소 등도 고려함
-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대규모 투자와 신기술 개발이 필요함. 이러한 투자 중 일부는 UN 적응기금(UN Adaptation Fund)과 COP 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저개발국 기금(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에 대한 신규 재정지원 공약과 같은 국제적인 행동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SDG 이행에 필요한 기금 대부분은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될 것임
- 최근 글로벌 금융 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부문 관련 기금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 자산 운용사가 보유한 총 금융 자산의 1.1%(4조 2천억 달러)를 이전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금융 격차(financing gap)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금융중심지는 저축과 투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10~20년 동안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 조달과 이에 필요한 금융시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할 것임. 또한 금융중심지는 정부, 공익, 금융기관 및 기업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

- 기술혁신과 디지털 서비스는 삶과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음. 기술과 혁신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미래의 금융중심지 활동을 내다볼 수 있는 렌즈가 될 것임
- 강력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성공한 도시가 주요 경제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 플랫폼 기반 솔루션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고 주민을

위한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가 금융중심지에서 지니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금융중심지는 자본, 기술 및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식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이러한 기술은 디지털 자산과 탈중앙화 금융(DeFi), 인공지능, 자동화, 핀테크, 사물인터넷과 M2M, 공개금융시스템,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 같이 다양한 모습을 보임.
- 새로운 기술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여 포용적 금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기존 서비스에 기반한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전적 과제를 주기도 함

II. 금융중심지의 발전, 역할 및 영향

1. 금융중심지 발전

■ 지난 50년간 금융중심지의 발전 동력은 전 세계 교역의 증가였음

- 이는 교통 및 통신 기술 발달, 관세 등 교역장벽을 줄이는 국제적 협약 발효 등에 주로 기인하며 그 결과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중은 1970년 27%에서 2019년 60%로 반세기 동안 **33%p** 증가

■ 1975년 이후 국제금융중심지들이 활발하게 조성되어 왔음

- 초기에는 무역 관련 활동에 집중하였으나,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증가, 금융규제 완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경제·금융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금융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룸
- 금융세계화는 국내금융시스템과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을 의미하며 국가 간 자본이동, 국내시장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의 국제금융시장 참여 등이 증가하게 되고 국제적 금융회사, 컨설팅회사, 법률회사 등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됨
-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중심지는 기존에 구축된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주체들과 외국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국내시장이 외국 자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

■ 앞으로 국제금융중심지는 교역 및 외국자본에 대한 접속성 등에 의해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교역과 비즈니스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 등도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임

2. 금융중심지의 역할과 영향

■ 성공적인 금융중심지는 다음의 조건 중 복수의 조건을 충족

- 글로벌 위상 - 여러 국가와 사업 수행
- 상당한 규모의 국가 간 거래를 수행하는 국제적 금융중심지
- 국가 내 금융서비스 및 관련 전문 분야를 위한 핵심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 한 국가 내에서 지역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지역 금융중심지
- 특정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의 위상을 가진 틈새 금융중심지

■ 금융중심지가 금융 활동이 집적되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국가 또는 도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함

- 정부 주도형: 금융중심지 발전 지원을 위해 금융중심지 또는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정부 주도로 조성
- 민간 주도형: 민간 부문의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와 국제 무역 및 통상 활동 지원

■ 유사한 분야의 활동 집적이 생산성, 혁신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의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증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에서도 금융 활동을 집적하는 경향이 강함

■ 금융중심지가 도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직접적 효과: GDP 성장률 증가, 투자 및 세수 증가, 금융 및 관련 전문 분야의 일자리 창출
- 간접적 효과: 금융시장 발전, 비즈니스 환경 향상, 제도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및 도시 개발

3. 금융중심지의 성과

■ Z/yen 그룹이 2007년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를 처음 편제한 이후 국제금융중심지 수가 늘어나는 경향

○ 국제금융중심지 수는 2007년 46개에서 2021년 9월에는 116개로 증가하였으며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늘어나는 모습

■ GFCI 점수 기준으로 본 국제금융중심지의 성과 점수의 표준편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4. 협조적 경쟁: 협력, 협조와 경쟁

■ 금융중심지를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

○ 커뮤니티는 공통의 역사와 목적, 일반적인 관행, 공동의 공간 및 시간, 공동 행동과 공통된 미래를 공유

■ 금융중심지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이 필수

■ 공동 의사결정, 벤치마크 및 성공 사례 교환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다른 금융중심지와의 협력 필요성이 배가되고 있음

■ 금융중심지 리더들과 금융서비스 제공 기업 간의 관계는 협력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함

5. 협업 구축

■ 다수의 금융센터가 지니는 공통적 특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을 추진하며 중앙 또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임

■ 금융센터 간 다양한 협업의 성공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예: FC4S, WAIFC 회원국 간 MOU 체결 등)

III. 금융중심지의 도전과제 대응 및 2030 비전

1. 금융중심지가 직면한 도전과제

■ 지속가능성

- 국제금융중심지 연합체는 인프라 투자와 창업 노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임
- 확대되는 글로벌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자금 수요는 향후 10~20년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객과 소비자들의 요구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금융기관들이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함
-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석탄 등 환경 파괴적 에너지원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장 원칙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임
- 금융중심지는 지속가능한 금융, ESG 금융 및 ESG 정보공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붙임1]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금융중심지 현황

■ 4차 산업/디지털 혁명

- 전 세계에 나타난 ‘변화’의 맥락은 모바일 서비스의 성장임
- ‘은행의 개인화’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됨
- 국제금융중심지들은 SDG 이행에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사블랑카와 르완다 금융시장이 핀테크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은 포용적 금융을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화의 역할을 탐색하고 있음. 이를 통해 빈곤 퇴치 및 불평등 해소 관련 SDG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핀테크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고객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많은 도시에서 포용적 금융을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화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관한 SDG를 이행할 것임
- 금융중심지들은 디지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준을 개발, 시행하고 포용적 금융을 개선하며 SDG 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함
- 선진 금융중심지들은 2030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각국에서 유통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함
- 디지털 금융의 진전이 공익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가 진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음
- 다양한 핀테크 관련 규제가 각기 다른 규제 시스템하에서 시도되고 있음
- 현재 다수 국가에서 신규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신규 사업 특화 규제를 적용하는 샌드박스 모델을 시행하고 있음. 이런 제한적 접근 방식은 선진 시장에서 주로 시행되는 반면, 신흥 시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더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라부안 및 미국 연방정부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법규 기준을 준수하면서 금융 사업을 하는데 동등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해 핀테크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독일은 규제당국의 인가를 받을 경우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 수월함
-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당국의 역할이 금융센터의 번영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임
- 규제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함에 있어 규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가격 및 경쟁, 시장 진입, 인수 합병, 독점, 독과점금지를 통한 경제적 규제는 혁신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제반 장려정책을 퇴색시킬 수도 있음
- 환경, 보건, 안전,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와 같은 사회 규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칠 것임
-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도전과제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규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를 시행하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임

※[붙임2] 국제금융중심지 디지털화 전략

■ 인적자본

- 금융중심지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인적자본으로, 디지털화와 기술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짐. 전통적인 금융 인재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데이터 분석가가 미래 핵심 인재가 될 것임
- 인재 유치 및 개발, 인력 역량 강화 및 재교육, 기존 인력 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ESG 또는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며 몇몇 국가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러한 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 분야가 더욱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전문화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관리자는 이런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함
-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법, 회계, 경영지원 서비스, 공익사업, IT 전문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붙임3] 국제금융중심지 인적자본 관련 현황

■ 규제

- 금융중심지들은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일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또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절대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음
- 규제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불안정한 시장이 초래하는 비용과 사업상 실패 요인을 회피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지원책으로 간주해야 함
- 금융중심지 연합체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금융사기 및 부패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고한 시스템이 가동하는 것임

- 금융중심지 연합체는 규제당국과 중앙은행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투자 절차, 업계와 시장 현황의 변화를 숙지시켜야 함
- 규제당국은 특히 디지털 서비스와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성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이해하고 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 이터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붙임4] 국제금융중심지 규제 개혁 현황

2. 미래를 위한 비전

■ 금융센터가 맞이할 미래 트렌드

- 금융중심지는 다양한 금융 분야의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적 도전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중심지들은 경제 및 무역 발전에 힘입어 지난 수십 년간 큰 발전을 이뤄왔음. 아프리카 시장과 금융중심지들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의 시행과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량 상승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간 지속적인 교역 증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신규 또는 신흥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지역은 글로벌 선도 금융중심지의 부재로 지역 금융중심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임
- 어느 한 곳에 지리적 사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기존의 방식이 미래에도 유효한 유형일지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중심지와 규제당국이 소통하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식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으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정착하면서 인력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는데 이는 규제당국과 금융중심지의 평판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수 있음. 이는 분산된 네트워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특정 지역의 사업활동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인력이 분산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수록 금융중심지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됨. 근교 및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한다면, 이를 위한 인센티브와 성과 측정을 고민해야 함

■ 미래 비전

- 미래에 성공적인 금융중심지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2030년도

에 성공을 거둔 국제 금융중심지의 모습으로 예견

- 친환경
- 스마트
-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
- 디지털
- 포용적
- 삶의 질 추구
- 규제
- 혁신
- 리더십과 협업

IV. 결 론

1. 금융서비스 제공기업과 인력이 근거리에 위치할 경우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 시킴. 이는 금융중심지가 설립된 국가의 경제성장과 금융기관의 발전을 촉진하며, 무역 및 통상과 연계성이 높음
2. 대부분의 금융업무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짐. 국내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금융이 필요하지만, 금융중심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우수 기업을 유치해야 함. 국제금융중심지 내 규제, 법규, 중재 및 개방된 사업환경이 체계를 갖추면 신뢰가 쌓이고 번창하게 됨. 규제가 가장 중요하며, 규제를 통해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3.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금융중심지 간 대화와 협업을 이어가는 것임. 이를 통해 미래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배우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나야 함.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와 유관 기관 리더들은 사회문제 해결에 금융이 나설 수 있도록 인재를 유치하고, 격차를 줄이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함. 금융서비스의 집약화가 혁신으로 이어지듯, 금융중심지 또한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함.

V. 주요 참고문헌

The Future of Financial Centres: White Paper, 2022. Retrieved from <https://waifc.finance/news/the-future-of-financial-centers/>

[붙임1]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금융중심지 현황

도시	현황
아부다비 UAE	ADGM은 UAE 중앙은행, 증권위원회, DIFC, UAE 거래소 담당자들과 함께 다수의 계획에 참여하였음. UAE 당국은 COP26 사전 회의에서 넷제로(net-zero)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시, 기업 지배구조, 녹색 분류체계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을 발표함
카사블랑카 모로코	- 카사블랑카 금융도시청(Casablanca Finance City Authority, CFC)은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 및 지속가능 금융(투자펀드, 전문서비스 제공업체, 신용평가기관) 분야의 주요 기관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WAIFC는 다자간 네트워크(FC4S 공동의장, WAIFC workstreams)를 통해 국제 협력과 성공 사례 공유가 핵심임을 인지하고 있음. CFC는 모로코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금융 국가 로드맵(M 금융, 금융당국, 은행 및 보험 연합, 거래소) 구축을 위한 주요 의제로 논의되어 왔음 - CFC는 금융센터의 국내외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
두바이 UAE	- DIFC는 UAE 중앙은행, 증권위원회, DIFC, UAE 거래소 담당자들과 몇 가지 계획에 참여 중임 - DIFC는 두바이를 지역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금융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감독 실무단인 두바이 지속가능 금융 워킹그룹을 공동 주관하고 있음 - Green Sukuk(친환경 이슬람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음 - DIFC 입주기관 중 80%가 ESG/지속가능 금융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며, ESG가 이슬람 금융처럼 당연한 자산 분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응답함 - 국가 주도 계획하에 금융서비스에 민간 분야가 참여하고 있음(UAE 그린 아젠다, net zero 이니셔티브, UAE 에너지 전략 2050, UAE 국가혁신전략 등)
프랑크푸르트 독일	- 프랑크푸르트 금융센터(Frankfurt Main Finance)는 환경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고 데이터 가용화, 표준화 및 측정화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여김. ESG 분야가 예상보다 너무 일찍 진전을 보이면, 일반인들이 그린워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임 - 정보공시 기준은 성공적인 전환의 핵심임. '측량할 수 있는 것만이 성과이다'는 오랜 격언처럼, 금융중심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런 공시 기준을 교육시켜야 함 - IFRS는 COP26 회의에서,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설립을 공표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 공시 기준을 개발할 예정임.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위원국 지위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 금융을 향한 독일 및 프랑크푸르트의 결의를 나타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정부는 2018년 ESG 사업의 핵심 기반인 민관 플랫폼 룩셈부르크 지속가능금융 계획과 함께 로드맵을 발표했음. 본 플랫폼에는 비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며, NGO는 특히 촉박한 시간 대비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는 ESG로의 전환이 사회에는 복잡한 변화의 과정일 것이며, 전환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이에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임. 다수의 산유국은 초국가 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생산대국인 카자흐스탄은 2021년 7월 생태법령을 시행하였음
슈투트가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 금융센터(Stuttgart Financial)는 정부, 경제, 환경, 재경부 및 기업체 포함 총 23개 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위해 창구를 설립 ♦2021년 4월에 지속가능 금융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공동 집필 및 발간함. FC4S의 금융중심지 권고안에 따라 총 5개 분야에서 전략을 이행하고 슈투트가르트 금융센터가 모니터링함 ♦몇몇 기관들과 공동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ESG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Internal Footprint 원탁회의, 워크숍 및 세미나 등 교육, 공동행사, 게임을 통한 ESG 직원 교육(지속가능 트래킹 앱 등) ♦기관 및 경제 규모의 차이, 관점의 차이로 진전 상황을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각 기관이 표준화된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설문지 결과는 보고서로 발간되며 금융중심지에서 사용하는 공동 측정법에 대해 설명하는 개요서에 기재해 더 연구할 예정임
토론토 캐나다	♦캐나다에는 최근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확인된 net-zero 목표 및 계획 관련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 문제는 대중이 진전과 성과를 빨리 거두기를 기대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필요한 데이터 축적에는 시간이 소요됨 ♦캐나다에서는 현재 전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목표는 높게 세우되,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전망이 필요함

[붙임2] 국제금융중심지 디지털화 전략

도시	현황
아부다비 UAE	•아부다비 금융서비스 규제당국(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FSRA)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며, 금융 분야의 위기관리 성과를 개선하려는 목표 아래, 핀테크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6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RegLab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디지털화하여 2021년 4월 Digital Lab을 설립하였음. (*디지털 랩: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시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인프라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공간) •APIs, 디지털 톨킷, 합성데이터 세트를 장착함으로써 디지털 랩은 핀테크와 금융기관이 금융 분야의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브뤼셀 벨기에	•벨기에는 금융 분야에서 효율성이 높은 ‘잇즈미(itsme®)’라는 앱을 개발하였음. 디지털 ID로 안전하게 로그인하며, ID 데이터를 공유하고,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임. 뛰어난 효율성을 갖춘 본 시스템은 많은 정부 부처에서 시민들과 소통 시 광범위하게 사용 중임 •브뤼셀의 핀테크 업계는 핀테크 벨기에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브뤼셀에서 디지털 금융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브뤼셀 금융중심지는 향후 NFT, 암호화폐, 메타버스와 기타 유사한 신개념 디지털 금융 관련 활동에 역점을 둘 계획임. •프랑크푸르트 주요 금융 분야와의 생산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유럽 중앙은행 전문가를 초청해 디지털 화폐 관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카사블랑카 모로코	•기술은 포용적 금융과 금융지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기술은 금융소외계층(농촌 인구, 경제 빈곤층, 도시 비공식 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지역사회와의 자립을 지원함
두바이 UAE	•DIFC는 종합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며 UAE에서 핀테크 및 혁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최대 규모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하였음•DIFC 혁신 허브는 스타트업에서부터 유니콘 기업에 이르기까지 500개 이상의 혁신 및 테크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UAE 지역을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임. 두바이의 혁신 주도 성장을 이끄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HH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총리 겸 부통령이 UAE 금융과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며 제시한 로드맵에서도 핵심 부분임. 금융서비스는 탈중앙화를 지향하지만 완전히 탈중앙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는 가속화할 것임. 즉,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향후 15년만 하더라도 금융중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음 (*탈중개화:금융회사 없이도 자금 부족자와 잉여자가 직접 금융 거래를 체결하는 환경) •정치 및 규제 동향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방지 등 더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일반적으로 핀테크라고 일컫는 것이 근본적으로 새롭거나 특별한 개념은 아님. 이러한 역동성은 내재되어 있으며, 프로세스 최적화를 촉진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함. 흥미로운 점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개념적으로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임. 이는 자산과 소유자 간의 관계

	와 자산의 활용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
모리셔스	•자금조달이 P2P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예를 들면 대출 등이 있음. •금융서비스 상품의 유통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중임. 고객확인절차(Know Your Customer)가 그 예임. 이를 위해 정보 저장소와 같이 필요한 도구를 개발해야 함 •모리셔스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피화를 시범 발행할 예정임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미래 리스크 관리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음 •공공 거래 장부를 통해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거래가 가능해지겠지만, 여전히 규제와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중앙기관이 담당해야 함 •인공지능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기타 신흥국가에서 포용적 금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대형 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기관은 정책, 규제 부담, 너무 많은 방어선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대응이 느림
파리 프랑스	•프랑스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 도입 시 금융안정에 많은 우려가 있음. 은행업계 일부는 이자수익, 수수료, 수입료 등 기존 이익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CBDC를 향한 혁신을 지원할지 고심하고 있음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시 고객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중심지들이 혁신으로 인한 변환이 지나는 이점에 대해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는 향후 몇 년간 규모의 변환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임
슈투트가르트 독일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미 금융의 탈중앙화, 신속성, 용이한 접근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치도 변하고 있음 •핀테크의 기능 상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은 핀테크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에 핀테크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중임 •이를 위해 핀테크 이니셔티브 ‘핀투게더(Fintogether)’를 세우고 사업 초기 핀테크 기업의 종자금(seed money)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자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 6개 신생 업체를 포함해 첫 지원금이 조달되었으며, 2회차 지원금은 2022년 1/4분기에 제공됨

[붙임3] 국제금융중심지 인적자본 관련 현황

도시	현황
아부다비 UAE	- ADGM은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골드 비자 제도에 따라 기존의 3년 계약을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전까지는 규제 담당자와 전문직업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디지털 전환, 데이터, IT, 핀테크, 가상자산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외국인 인력의 유치 및 유지를 위해 ADGM은 인센티브와 매력적인 생태계를 제공함. UAE 내 국내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ADGM은 교육기관 및 대학교들과 협업 중임
브뤼셀 벨기에	- BFC의 주목표 중 하나는 금융 관련 교육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 간 네트워킹 활성화임 - 많은 은행 및 보험사는 젊은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BFC는 벨기에 은행연합인 Febelfin과 벨기에 보험사연합인 Assuralia와 함께 “청년과 금융의 미래”라는 중요한 컨퍼런스를 준비 중임
부산 대한민국	부산에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대학원들이 설립되어 있음. 수도 서울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젊은 층이 아직 많아서, 지역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를 부산에 확보하기 위해 서울과 경쟁하고 있음. 이를 위해 부산은 한국해양대학교 내 해양금융대학원, 부산대학교 내 금융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금융서비스와 기술 분야 인재들을 양성하고 유치해 오고 있음
카사블랑카 모로코	- CFC는 인적자본 및 인재 유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음 - CFC는 CFC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현지 인력풀(직무능력/전문/대인관계 기술직) 역량 개발을 위해 미국 우수 대학교의 MBA 학위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제 교육 및 인증기관(CFA, CISI, CII)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CFC는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핀테크, 녹색 및 지속가능 금융 등 특정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운영 중임 - CFC는 해외에서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은 모로코인들을 본토로 재영입하는데 주력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음
두바이 UAE	- 적격 요건을 갖춘 인력에게 10년 기한 골드 비자로 갱신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006년에 설립된 DIFC 아카데미는 세계 우수 대학 및 교육기관에 DIFC가 지닌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DIFC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공통법에 기반한 검증된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음 - 두바이는 UAE 내 가장 큰 금융생태계로서, 약 3만 명의 전문직이 3,600개 이상의 법인에 근무 중이며, 이를 통해 UAE 최대 규모의 다양한 금융인력 풀을 갖췄음. - 정부의 세계 최고 인재 중심지 구상에 따라 DIFC 직장인 퇴직연금제를 확대 중임. UAE에서 최초로 도입된 본 제도는 세계 성공 사례에 발맞춘 포괄 퇴직연금제로, 직원들의 은퇴 설계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
키갈리 르완다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된 비자 정책 외에도 자체적으로 국내 인력 양성 중임. 타 금융센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벤치마킹 중
모리셔스	외국인 취업 허가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식 이전, 즉 지역 인재가 현지 체류 외국인의 금융기술을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현재 모리셔스에서 취업 이민이나 핀테크 회사를 창업하기 위한 투자 및 인력 최소 요건은 없음 •아프리카 리더십 대학교를 통해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아프리카 리더십 대학교: 모리셔스와 르완다에서 모두 학사학위를 가진 3차 기관 네트워크로, 2035년까지 아프리카와 세계를 위한 300만 명의 윤리적 기업가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함. 프로젝트 중심적 방법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고 세계 추세에 걸맞은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향후 50년간 300만 명의 젊은 아프리카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임) •모리셔스 정부는 2015/16년 예산 책정 시 금융서비스연구원 발족을 공표하여 금융서비스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심화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또한, 2020년에 설립된 모리셔스 금융은 모리셔스 금융서비스 산업을 대표하는 대변기관으로, 교육 및 금융서비스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현재 누르술탄은 매해 2천 명의 전문가를 양성 중이며, 주로 리스크 관리 담당자, 회계사, 금융 분야 리더, IR 전문가 개발에 주력 중임. 또한, 카자흐스탄 대학들과 협업 중이며, 자국 IT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음
오만	•오만은 2가지 추진 계획을 주축으로 인력을 양성 중임: 보험 특화 과정을 통한 직원 교육 자본시장 관련 역량 숙련화 교육 •다수의 업무협약을 통한 국제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지식 이전
슈투트가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 내 주요 현안은 금융교육이었음. 이에 따라 학부생들을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대두시킴 •대학들과 협업 중인 프로그램: 공동 강의 금융업계 종사자를 초빙하여 실무 교육(사전 네트워킹 효과) 금융 석사과정 운영 기존 인력을 위한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워크숍 •현지 인력이 프랑크푸르트로 정기적으로 이탈 중이나,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개발하여 충원하고자 함: 청년 전문가 프로그램-6개월간 금융업계(은행, 보험, 자산관리, 거래소, 핀테크 등) 순환근무 인턴십 시행 중 •대학교 동문회들과의 접촉으로 금융업계에 조기 네트워킹 촉진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 금융중심지는 '인재 유치, 유지, 재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 현재 기술 및 STEM 분야 등 다양한 학위를 보유한 인재들을 유치 중이며, 성별,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금융 분야 혁신을 추진 중임. (*STEM: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Math 수학) 이를 위해 대학교별로 취업 캠페인을 열어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붙임4] 국제금융중심지 규제 개혁 현황

도시	현황
아부다비 UAE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은 진보적인 금융중심지로, 업계 최고 금융기관, 투자자, 혁신기업들이 규제당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탄탄하며 신뢰성 있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해 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음 •이를 위해 FSRA는 2015년 설립 이래 국제 기준 및 세계 우수 사례들의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음 •또한, 상기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업에만 입주를 허가해야만, 현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향후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브뤼셀 벨기에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규제를 개정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 유럽연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다음 문제가 발생함: 준법팀이 종종 ‘영업방지팀’으로 인식되는 것임. 몇몇 은행들은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계좌를 강제로 폐쇄시키고, 비영리기관조차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사업 영위와 사기 방지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음
부산 대한민국	•부산은 정부가 지정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임. 규제 샌드박스 특구로 지정된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수행 중임. 최초 2년간의 시범 기간 후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으면 정기사업으로 전환됨
두바이 UAE	•DIFC는 영국 보통법에 기반한 지역 내 가장 입증된 규제 및 법률 체제를 갖췄으며, 이를 통해 DIFC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로 부상하였음 •두바이 금융감독청(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은 DIFC 내외부로 수행 중인 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규제당국임. DFSA는 리스크 기반의 독립적인 금융 규제당국이며, 최신 금융기술(결제,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 관련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 •핀테크 등 중요한 금융 비즈니스는 규제가 필요함. 이들은 금융시스템에 포함돼 공식적인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규제를 원하는 상황임 •규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특정한 역할을 지님. 정보공시 요건의 적정선과 감독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분야와 함께 해결해야 할 별개의 사항임 •신흥 금융중심지 대상으로는 규제가 아니라 발전과 경제성장이 주요 목적임. 두바이 금융중심지에는 당연히 규제당국이 있으나, DIFC의 관할 업무는 더 광범위함
프랑크푸르트 독일	- 규제의 맥락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유형이 규제 샌드박스임. 독일의 경우, 각 분야별 동일한 금융 활동이 동등하게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의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2021년 7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독일 펀드포지셔닝법(Fondsstandortgesetz)이 2021년 7월 1일 자로 발효되었음. 국내 특별 펀드가 운용 펀드 규모의 최대 20%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통해, 독일은 금융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음
모리셔스	•가상자산 및 신규 토큰 상장 서비스에 관한 법안 202가 2021년 12월 통과되어 토큰 제공업체와 토큰 상장에 대한 규제 기틀을 마련함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데이터가 규제당국의 관할에 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규제기관이 감독을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며, 기술에 역행하지 말아야 함 ◆본 금융중심지의 임무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여 국내 및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 적절한 규제 체계는 초기 단계부터 소액 투자자 (retail investor)를 포함함
오만	◆본 금융중심지의 최우선 순위는 투자자 보호임. 논점은 해당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한 채 신규 금융 사업에 허가를 낼 수 없으며, 규제당국으로서 대상의 사업원리를 모른 채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임 ◆현재 규제와 기술을 두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활발하고도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음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는 필수임. 핀테크 및 기타 기술이 초래하는 모든 와해 때문에 규제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파리 프랑스	◆각기 다른 규제일지라도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함. 프랑스에는 유럽연합의 규제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규제도 시행 중 임. 더 나아가, 모든 비즈니스에 열린 자세를 지닌 규제당국이 필요함
슈투트가르트 독일	◆규제는 언제나 논란이 되는 주제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 없이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할 수 없음 ◆규제는 필요하나 혁신적인 사고와 아이디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계를 지켜야 함
토론토 캐나다	◆캐나다 은행시스템은 엄격한 규제 하에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간혹 은행 이사진이 리스크 관리에 몰두하여 혁신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기도 함

[붙임5] 두바이 국제금융중심지(DIFC) 현황

두바이 국제금융중심지(DIFC)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금융중심지로 3,70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두바이는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중추적인 금융중심지들과 함께 세계금융중심지지수(GFCI)의 상위 20위 안에 지속적으로 포함된 유일한 도시임

▷2017년부터, DIFC는 500개 이상의 핀테크 및 혁신기업들을 유치하여 금융의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목표를 강화함

▷DIFC는 핀테크, 혁신, 지속가능한 금융 및 디지털 경제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금융의 미래를 주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DIFC는 WAIFC 회원들과 비즈니스 성장과 경제가 ESG 원칙에 달려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2019년, DIFC와 두바이 금융시장(Dubai Financial Market, DFM)은 두바이 지속가능 금융 워킹그룹(Dubai 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을 설립하였음.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 및 세계적 수준인 호카마(Hawkamah) 기업지배구조 연구기관의 대표들은 이 워킹그룹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에 ESG 원칙을 포함시키고 두바이를 지속가능한 금융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ESG 원칙은 DIFC의 법률, 규정 및 운영 모델에 완전히 통합되어 고려되고 있음. 현재 DIFC 고객의 80%가 의사결정 시 ESG를 고려하고 있음